

몐소 정해주신 평가기준

2015년 11월 어느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공장에서 만든 갖가지 어린이식료품견본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제는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해야겠다고 하시며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분석체계까지 세워놓았으니 제품의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에서 제품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수첩에 적어나가던 공장의 일군은 새로운 목표라는 글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과연 무엇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목표를 정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앞섰던것이다.

일군의 이러한 속마음을 헤아려보신듯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갓난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맛은 안다, 같은 우유가루라도 아이들이 이 공장의것보다 다른 나라의것을 잘 먹으면 이 공장의것은 맛이 없다는것이다.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혀주신 평가기준에 따라 그후 공장에서는 보다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다.